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루카 21,17-18)



루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을 때 자신의
복음을 써요.

**하느님의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모든 시기의
그리스도인들과**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경고와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더 개인적인
삶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더 더 미래에
관한 것**이에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미움 받는
것은 보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복음의
가치를 거부하는 사회의 삶의 방식은
늘 대조될 것이에요.**
이 대비는 다소의 유혈 박해로
드러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의
차이점**이 될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주고자 했던 사랑에
대한 대가로 증오를 되돌려 받아요.

이 보상이 우리를 혼란하게 하거나,
놀라게 해서 안돼요. "이기적인
사람과 하느님 사이에 존재하는
반대의 표식이며,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걸으셨던 것과 같은 올바른 길에
있다는 보증**이에요.

그 때 마음을 지배해야 하는
것은 기쁨인데, 그 기쁨은,
모든 상황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며,
제복이에요.

또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 들인 친구이기도
하고 그들의 사랑이 위안과
힘의 원천임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centro.rpu@focolare.org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01
Parola di Vita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movimento dei
focolari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루카 21, 17-18)



우리는 완전히,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느껴야
해요.

하느님께서서는 당신께서 직접
우리의 작은 걱정들, 우리의 삶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모든 것을 돌볼
것이라는 확신을 주고자 하세요.

우리의 태도

우리가 증오 또는 폭력에 의해
위협 받았다고 느끼고, 오만한
자비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f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학대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세요**

**미움을 반격해야 하고
사랑으로 이겨내야 해요**

예수님의 약속: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세요**

진정한 고난을 겪고,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면서
예요.
그리고 숨기거나 미묘한
방법으로조차 누구도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을
거부 하는 이 세상은
하느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느님의 부름에 응답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증오가 흘러 나오는 바로
그곳에 사랑을 넣어 려고
노력해요.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izi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miltà